

## Y의 성장과 우리의 과제

—23회 전국대회 총무보고—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한국 YWCA는 지난 3년 동안 하나의 성숙한 운동체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 디디려는 기를 마련에 노력하였다.

박 영 숙 (연합회총무)

이번 대회는 YWCA가 이 나라에 창설된지 45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개최하게 되어 지난 3년 뿐만 아니라 45년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보다 의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먼저 이렇게 훌륭한 유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앞서 간 지도자나 계속 헌신하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지난 3년 동안 YWCA의 새로운 출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노고가 큰 연합회 회장과 연합위원 그리고 후원회 이사장과 이사 일등을 비롯하여 각 지방 YWCA의 회장과 이사 일등, 그밖의 발란티어들, 한국 YWCA 고문과 각 지방 총무들, 전국 YWCA의 직원들, 전국 YWCA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전국대회 대표 각 사람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3년동안 9개 지방 YWCA와 26개 대학생 Y, 33개의 청년클럽 그리고 153개의 Y-틴 클럽들의 활동상에 관해서는 해마다의 연말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니와 한국 YWCA 전체적인 사업내용도 전국 대회 자료철에 제시하였기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려 하나 지난 3년동안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한국 YWCA가 하나의 성숙한 운동체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 디디려는 기를 마련에 노력하였다고 보아서 지난번 전국대회에서 결의한 특별사업에 관한 보고에 덧붙여서 몇마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허락된 시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우리나라 YWCA의 과제와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 경비정 건축 기금 모금운동

지난 전국 대회에서 특별사업으로 결의된 바 있는 첫째 사업은 1964년도에 전개되었던 경비정 건축기금 모금운동으로서 실력으로 우리나라 평화선을 지키는데 YWCA 회원들도 가담하려고 한 것이다.

그 성과는 원래 대회에서 결의되기는 1천만원 목표액이었으나 회원들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을 상대로 전개하게 된 관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내부부의 기부행위 허가 신청시 모금액이 10분의 1인 1백만원으로 축소되어 약 1년 반의 모금운동 전개 결과 목표액을 초과한 151만 5천 9백 3원과 1965년 12월말까지의 은행 원가금 23만 4천 97원이 합해진 1백 75만원이 현재 내무부 해안 경비과에 현납 되었다.

애초에는 경비정 건조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정 건조비의 소요액이 막대하여 도저히 이의 성취가 어렵게 되어 기다리던 중 드디어 1967년 5월 초순경에 이르러 그 계획을 변경, 해양경찰대 훈련선 건조 자금의 일부로서 투입하게 되었다.

이 시설은 부산 제2부두에 있는 부선(浮船)으로서 선체내에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 시설을 구비한 교육시설로 우리나라 해양을 지킬 수 있는 많은 경비원들이 훈련될 것이며 총 건조비는 약 8백만원이 되며 당국에서는 YWCA 회원들의 뜻과 공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 교육선을 YWCA호로 명명할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며칠전에 전달된 소식에 의하면 8월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이며 각 지방 YWCA 지도자들을 초청하리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올리는 데 열려진 미담이나 회원들의 활동상은 감격적인 것이었으며 국가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YWCA도 있는가 하면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하여 귀한 저축금을 전액 희사한 YWCA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 전국 대회 3년마다 열기로

둘째 결의로서는 매 2년마다 개최하던 전국 대회를 3년마다 개최하기로 하고 YWCA 운동을 청년의 운동으로서 그리고 회원의 운동으로서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1965년도에는 회우대회를, 66년도에는 청년대회를 각각 개최하므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1965년 7월 13~16일까지 「번천하는 세계와 여성」이란 주제하에 대전 감리교 신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수일 전에 한일정상화 문제에 관련된 시국의 소란으로 부득이 이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적인 조치로서 「정신 강화주간」을 설정하여 전국 YWCA가 동 시각에 구국기도회를 가지면서 준비되었던 내용으로 각지방 Y가 연구회를 가진바 있다.

1966년 6월 「오늘의 청년」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었던 청년대회에서는 연맹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매년 가질 것을 결의하였으며 연합회에서는 청년부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히 지도력 양성을 비롯한 연장교육 또는 사회문제 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는데 각 지방 Y에서는 이들에게 정기적인 클럽활동을 가지도록 하므로 프로그램 중점 실시에 앞장서게 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청년의 클럽수

가 증가된 것은 좋은 현상이다.

### 지도자 양성위해 간사 파송

세째로 지난 전국대회에서는 각지방 Y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안으로서 유능한 간사의 장기체류(1개월—3개월)를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방 Y의 간사훈련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우 파송 간사의 봉급은 파송 Y가 담당하도록 하고 1965년 서울과 광주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서로의 유익을 도모한 바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상 추진시킬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나 이의 효과로 보아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간사훈련 센터 설치 건의

네째로 YWCA 지도자의 해외훈련을 위한 것으로 동남아 지역 간사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을 세계 Y에 건의키로 전국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1964년 12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세계 YWCA 상호 협조부 책임자 자넬 톰슨 여사와 그밖의 세계 Y지도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건의하였으며 세계 Y의 재정력과 동남아 지역의 형편이 허락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금번 개최 예정인 세계 YWCA 협의회에 우리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여 재삼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다음으로 YWCA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를 마련으로 노력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의 한 일 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YWCA 창립 45주년 기념사업으로 설정된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장 설립과 연합회 회관 건립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연합회 회관·캠프장 설립

이것은 한국 YWCA 창설 이래 가장 큰 사업으로서 오래동안 염원해오던 일이기도 하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용단을 내리게 한 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었던 것이다.

수명이 다 된 건물유지도 어려웠거니와 급진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대지 34평을 길 폭을 넓히는데 내어놓게 되었으며 그보다 더 1966년 연합위원 총회에서 제의된 한국 YWCA의 항구적인 재정책 수립과 확장되어 가는 대학생 YWCA의 요청에 의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6월 5일에 거행된 기공식에 이어서 지금 지하실공사 중에 있다.

동시에 설정한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장 설립은 1965년 11월 12일 유한양행 사회교육 신탁재단으로부터 경기도 소사에 위치한 39,810평의 임야를 회사받게 되고 이 재단이 제시한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에 의하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모금을 일시에 하는 것이 폐를 적게 한다는 이유로 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 이러한 꿈이 현실화 된다면 차기 전국대회나 대학생, 청년, Y·틴들의 연차대회 장소 물색의 고충은 해소될 것이

며 무더운 계절에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시원한 계획이 실천될 수도 있겠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는 약 1억 2천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그 중의 4분의 1은 회원의 힘으로 만들어 내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에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야 한다.

### 재정 자립대책 마련해야

연합회 재정문제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지방 YWCA의 지원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실정으로 6.25 동안 이래 세계 Y 상호협조부를 통한 여러나라(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어 오던중 근래에 와서는 그 액수가 점차적인 감소를 거듭해 오고 있으며 불원한 한국지원은 중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YWCA가 재정 자립에의 노력을 구체화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강요된 요청이었다. 그러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획한 것이며 이의 성취를 위하여 전국 YWCA는 필기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목표가 달성될 때에 한국 YWCA는 의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보다 튼튼한 터전에서 내일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재정 자립에의 노력은 연합회만이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 각 지방 Y의 사업 확장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증대된 예산충당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모두가 재정 자립책을 강구한 것은 앞으로의 YWCA 운동에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각 지방은 지난 3년 동안에 재정 자원의 하나인 시설 활용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모두가 건축의 개축 또는 증축에 힘을 기울인 것과 여러 종류의 기금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단법인 대한 YWCA연합회 후원회가 연합회의 재정 충당을 위하여 1961년 3월부터 YWCA 기금 모금에 착수한 것도 그 중의 한 예가 되겠다. 후원회에서는 현재까지의 모금액을 활용하므로 연합회 경상비의 30%이상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1965년에 부득이 할 수 없었던 농예원을 교육원으로 개편하는 데 앞서 감행한 교육원 신축 및 개축 공사비의 예상 외의 지출, 또는 45주년 기념사업 공사비 모금 등으로 1966년 이래 기금액수가 증가되지 못하고 있음이 유감이다. 지난 전국 대회에서 보고된 기금액은 135만 167원이었으며 현재 352만 4천3백 70원으로 217만 4천2백 3원이 지난 전국 대회 이후 증액된 것이다.

재정문제는 YWCA 운동 전개에 필요한 요소중의 하나로서 이의 항구적인 또는 근본적인 대책은 필연적인 것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로서 1969년부터 의원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은 한 개인이, 가정이나, 기관이 또는 국가가 바라는 바이며 이것이야말로 개인성장에 또

는 운동성장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써 중요시 되는 것이다.

### 회원의 운동으로서 Y 강화

물째로 지난 3년간에 노력한 것은 Y WCA가 회원의 운동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YWCA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그의 모습을 변모시킬 수도 있겠으나 YWCA는 분명히 하나의 구호 또는 자선사업 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성인교육 기구나 단순한 사회사업 기구도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개혁자 내지는 문화의 변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이나믹한 회원의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성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1966년도 연합위원 총회에서 검토된 회원의 동태에 의거하여 회원의 운동강화의 목표도 설정되었거니와 특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문제검토를 위촉한 바 있어 금번 대회에 그 보고가 제출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YWCA 회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쓰여질 것이다.

YWCA 운동을 회원의 운동으로서 강화하여야 하게된 것은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당면문제 양상의 변화에도 관계 있다고 보아 중요시 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관의 능력으로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동의 힘으로서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일일히 들 필요도

없으리만큼 각 지방 Y는 실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지역적으로 확장된 Y운동

세계의 노력은 국내 상호협조부의 Y WCA 운동 확장에의 관심으로서 결과적으로 11개 중소 도시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것은 Y WCA 운동이 지역적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육성문제이다.

이번 대회에서 논의점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새로운 YWCA의 당면문제 해결은 효율적인 대책강구를 요청하고 있다. 지도력과 재정문제에 따른 이들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하는 문제들이다.

새로운 동지자로서의 이들의 가담을 우리는 환영하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용의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다. 다음 전국 대회시에는 모두가 훌륭한 지방 Y WCA 대표로서 이 대열에 가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양면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 출판·공보활동의 쇄신 강화

지난 3년간의 노력한 일 가운데 네째 번으로 들고 싶은 것은 출판 및 공보활동의 체계를 쇄신하고자 하였던 일이다. YWCA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보활동을 의식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가 맡은바 책임을 다한것 뿐으로서 대외선전의 필요성을 하등에 고려하지 않은데서 온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의 쇄신 없이 YWCA 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어렵다고 보아서 서울 Y와 연합회에서는 공보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직원을 실무진으로 포섭하거나 예산책정에 용단을 내려서 간행물의 체제를 과감하게 개편하므로 1966년 이래 이를 강화하였다.

서울 YWCA 월간 신문이나 연합회의 월간지를 인쇄체로 향상시킨 동시에 편집에도 특별한 배려를 하므로 지방 YWCA의 프로그램 자료 또는 지도력 양성 그리고 대외선전 자료로서 쓰여지게 된 것은 공보활동의 장족의 발전을 말하여 준다.

금년도 4월중에 있었던 45주년 기념 행사로서 시행한 시청앞 제시관을 이용하여 전시하였던 우리나라 YWCA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43점의 사진 전시회, 기념 대 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여러 매스컴 기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YWCA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효과가 컸었다.

부산물이기는 하나 각 YWCA의 재정지원인 시설 대여를 통한 대외선전도 상당한 도움을 가져왔으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올바른 인식을 부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 지방 Y와 연합회는 과학적으로 YWCA를 알릴 수 있는 자료 마련에 보다 성숙한 솜씨를 보여야 함은 성숙한 YWCA로서의 필연적인 과제라

고 지적한다.

## 사회여론에 나타난 Y의 인식

다음으로 사회여론에 비추어 본 YWCA를 검토하면서 사회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내일의 세계 건설자로서의 올바른 과제를 모색하여 보도록 하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믿는다.

1967년 4월23~29일까지 일주일동안 설정되었던 한국 YWCA 주간에 시행된 집중적인 공보활동을 통하여 15회의 문화면기사, 4회의 사설, 2회의 가십란 기사와 8회에 걸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Y월간지에서 「YWCA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앙케이트를 통해 본 YWCA는 우리들에게 자부심과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반성과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여 준다.

한국 YWCA가 과거 45년 동안에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및 기회제시,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생활개선, 애국애족 운동, 여가 선용과 봉사활동, 민주정신 배양, 성인교육, 청년들의 힘을 사회건설에 동원, 불우여성 및 청소년들의 복지향상, 여성의 지도력 양성, 부녀자들의 전인 성장도모 등으로 여성계의 선봉에 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운동으로서 근대의 새로운 여인상을 구현하며 한국 근대화에 공헌이 지대하므로 한국 여성사에 찬란한 도표로서 남을 것이라고 사회 여론은 극구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YWCA가 아무리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크게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시정이 되지 않는한 모든 여성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 회원자격의 방법제시 부족

실질적으로는 종교, 교육, 경제 및 직업의 차이가 회원이 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되지않고 있으나 사회의 인식은 교육과 생활수준이 상당하며 기독교인이라야만 한다는 것이 암암리에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당된 평가는 아닌 것으로 알지만 서구문명 도입에 앞장 선 YWCA가 언제나 민족의 주체의식 같은 것이 더 중요시 되던 초창기의 정신이 흐려지거나 앓았는가 염려하는 평가도 있었다. 그보다 더 회원이 될 수 있는 방법제시가 일반 부녀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회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다.

###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프로그램

사회 여론은 이 문제의 해결안으로서 YWCA의 프로그램이 대중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그러한 운동은 약자와 빈자의 지위향상, 여성생활의 개혁을 가져오는 것으로 사치배격, 「치마바람」 제거, 생활 합리화 운동 또는 소비자 권익옹호 운동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예를 들어서 YWCA가 하고 있는 봉사사업이 요구호 대상자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안일한 생각에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YWCA는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개척지대의 일거리를 찾아 새로운 움직임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농촌과 도시의 서민층의 여성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항의하고 대변할 뿐만 아니라 유한층의 여성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불러 일으켜 행동에 앞장서게 해야하며 있는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식의 정신과 태도를 버리고 모든 한국 여성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동등하게 나누어 소유하도록 노력하는데 선구적 개척자적 활동을 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3. 1운동 직후에 불의에 항거하여 투쟁하던 기백을 다시 살려서 타단체와 협력하여 달갑지 않은 풍조를 불식하는데 앞장서며 그러므로 전 세계와 전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운동이 되기를 회구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가 YWCA에게 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의 여론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큰 기대와 우리가 다 하여야 할 과제를 동시에 찾아볼 수 있었다.

### 내일의 도전에 대한 대책 강구

우리는 이러한 과제에 덧붙여서 「내일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내어 놓고 앞으로 3년간의 프로그램 설정을 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여야 하는 문제들은 신중한 우리의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근래의 우리 주변에서는 앞날을 여러모로 예측하는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현대의 특징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이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실현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히 이러한 세계는 우리에게 도전하여 올 것이며 우리는 또한 이들에게 도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일의 도전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여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다.

### 30년 후는 「백세 인간시대」

7월 19일자 한국일보 2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 30년 뒤에 올 별 천지는 「백세 인간시대」라는 것이었다.

미국 산업계의 한 전문가가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서기 2천년 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을뿐더러 행복감에서 도취감에 이르는 어떤 기분이라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제시해 놓았는데 심리, 화학, 물리학적 기술은 인간에게 완력을 쓰는 일 없이 남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는가하면 1977년 경에는 반향의 의지를 죽여버리는 약을 발견하고 전망증을 일으키고 인공적인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약품도 만들어 낼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2천년대에 가서는 잠재적으로 유전이 되는 여러가지 결함을 탐지하여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들의 커피잔에 불쾌감을 제거하는 환약을 슬쩍 집어 넣어서 그의 기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상이 되면 YWCA의 책임은 상당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더그러스 스페이스 시스템사의 레오도로 폴든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 흥미로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유와 개성을 보전하는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었으나 벌써 전에 내다본 2천년 대에서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가 본 2천년대는 핵 관리문제와 인구증가와 식량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로서 기계의 발전이 또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박탈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인간들은 보다 많은 여가를 가지게 될것인데 이러한 결과로서 인간은 더욱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확실한 비전 갖고 있어야

우리는 30년 후에 올 세계까지 앞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제강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펴이나 고무적인 우리의 앞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나라의 자주와 자립과 번영이 안착하는 대망의 70년대를 향하여 우리의 과제는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된 한국을 건설하려는데 우리의 3대 원수는 빈곤과 부정 부패와 공산주의이며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현명한 지도자는 내일 내주 내월 내년 내 세대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확실

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어떻게 말하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시대는 실현될 것이며 이를 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각 분야의 발전 및 번창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정의가 지배하는 복지사회는 YWCA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추구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추구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더 시급

급진적인 변천속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는 세계의 새로운 역사와 대망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정황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과제는 대회 기간동안 있을 강연과 토의에서 밝혀질 것이나 한가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내일의 도전으로서 주제강연에서는 의식구조의 확신, 인간성의 존중, 새로운 협동이념 또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신념과 물질의 가치인정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과제는 문제 모색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보다 긴요하다는 결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YWCA 지도자들이 한국 YWCA 중점 제안 초안을 보고 이 이상 많은 항목을 골라낼 수는 없었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차기 대회에서의 중점 설정시에는 항목의 서열만 바꾸어 놓으

면 되리만큼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지난날의 우리들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눈에 익은 항목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중점으로 재삼 설정되어야 하는데에는 시행상의 장시간을 요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행방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번 대회에서의 보다 중요한 과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대표들이 각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탐색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종적인 확충방법의 연구필요

면밀한 검토끝에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들의 지난 3년간에 대하여 분과 토의반에서 논의될 문제를 제기한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프로그램 전개에 관한 문제이다. 비교적 YWCA는 사회의 요구 또는 부녀자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실시한 프로그램이 거둔 실효과는 무엇인가 하는데에는 큰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 포착과 그에 대한 대책 강구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능발휘를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점을 우리는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YWCA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즉각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프로그램의 획적인 확장에 비추어 종적인 확충이 미력하였던 점을 고려한 방법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집회에서 근래의 모든 기관들이 전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시적인 효과는 100%이나 실상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영향이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보았는데 같은 자가평가를 우리들도 해야하지 않을까?

YWCA는 어떠한 전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다방면의 문제를 다각도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문제해결의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안정된 사회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사회의 YWCA 사업은 지방수준에 이르러서는 보다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업화되어 있으며 그 기능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에도 어떠한 한계를 질 수 있게 될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까지 YWCA의 프로그램은 전반적일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착한 문제점을 증점적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YWCA가 점차적인 성장을 기도하고 있는 지도력이나 재정력에 따라서 YWCA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히 시대적인 것으로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YWCA는 초창기의 개척정신과 성숙하여진 일 솜씨로서 이 사회에서 없어

서는 안되는 기구로서 계속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 운동의 원리 확충되어야

둘째로 YWCA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문제로서 먼저 우리는 무한대의 자원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무한대의 자원과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제한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들에게 결함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자원과 능력의 제한을 가져온 요소들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향상시켜야 할것은 향상시켜야만 하겠다.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YWCA는 운동이다. 운동이 가지는 특성의 하나가 뭉쳐진 힘과 번져나가는 힘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가지는 힘의 원리를 우리 프로그램에 얼마나 활용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개인이 기관자체와만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것은 설명할 여지도 없이 운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과 개인들이 어떠한 이념하에 연결되는데서 생겨진 다이내믹한 힘은 운동의 움직임의 회전도를 높이며 이것이 높아갈수록 그 외운의 선은 원심분리의 법칙에 의하여 끝없이 넓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기하급수적인 확대를 가져오는 가능성인 것이며 YWCA운동의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가 확충되므로서만 오늘의 사회구조에서 YWCA가

# 한국 YWCA



— 전국대회 총무보고 —  
Y의 성장과 우리의 과제  
내일의 도전

제 15 권 제 7 호

9 月. 1967.

한국 YWCA 1967년 9월호

목

차

|                                     |             |
|-------------------------------------|-------------|
| 이달의 주장.....                         | 1           |
| 내일의 도전.....                         | 주요한..... 2  |
| 세계 Y 운동의 당면과제 <세계 Y 협의회 시리즈 ③>..... | 8           |
| Y의 성장과 우리의 과제 <23회 전국대회 총무보고>.....  | 11          |
| 한국 YWCA 운동의 중점.....                 | 22          |
| 전국 대회를 마치고.....                     | 조규혜..... 24 |
|                                     | 고원자         |
|                                     | 장화인         |
|                                     | 윤숙희         |
| 뉴 스.....                            | 28          |
| 건축기금 약속자.....                       | 31          |
| 표 지.....                            | 33          |
| 편집후기.....                           | 33          |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커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힘에 의거하여 번져지는 YWCA 목적달성의 효과는 우리가 회고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건설에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프로그램—종적인 확충을 기능발휘—횡적인 확장을

이러한 힘의 확장은 첫째문제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프로그램 시행은 횡적인 확장에서 종적인 확충으로 보다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과 반대로 종적인 상하관계 원칙에서 횡적인 확장 및 확충을 기하는데 보다 주력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되풀이 한다면 프로그램은 종적인 확충을, 기능발휘는 횡적인 확장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 3년간의 과제이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표들이 함께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믿어서 끝으로 YWCA의 청소년 회

원인 Y·틴, 대학생 그리고 청년회원들에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대회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의 네루수상이 「청년은 내일의 세계」라고 하였다. 한국 YWCA가 모색하려는 「내일의 도전」 앞에서 내일의 세계인 청년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책임을 바로 인식하고 다 할때에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내일의 세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겠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들의 영이 되살아 나며 지쳤던 육의 피곤이 풀리고 무디어졌던 인식을 날카롭게 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각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보고를 마치려 한다.

### ◇ 토막상식 ◇

#### 66년도 1인당 국민소득 114달러 30센트

66년도 우리나라 불화(弗貨)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114달러 30센트(3만1천6원)로 확정되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8월28일 지금까지 60년을 기준으로 했던 국민소득 제정을 65년도로 바꿈에 따라 이와같이 1인당 국민소득을 확정지었는데 이는 65년도 국민소득 101달러 20센트(2만5천1백28원) 보다는 13달러 10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66년 1년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가 11.3%, 도매물가 7.6%나 되므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그만큼 상쇄된 셈이다.

한편 66년도 국민 총생산(GNP)은 경상시장 가격으로는 1조32억원, 65년도 불변시장 가격으로는 9천1백38억원이었고 1인당 국민 총생산액은 130달러 80센트에 달했다.